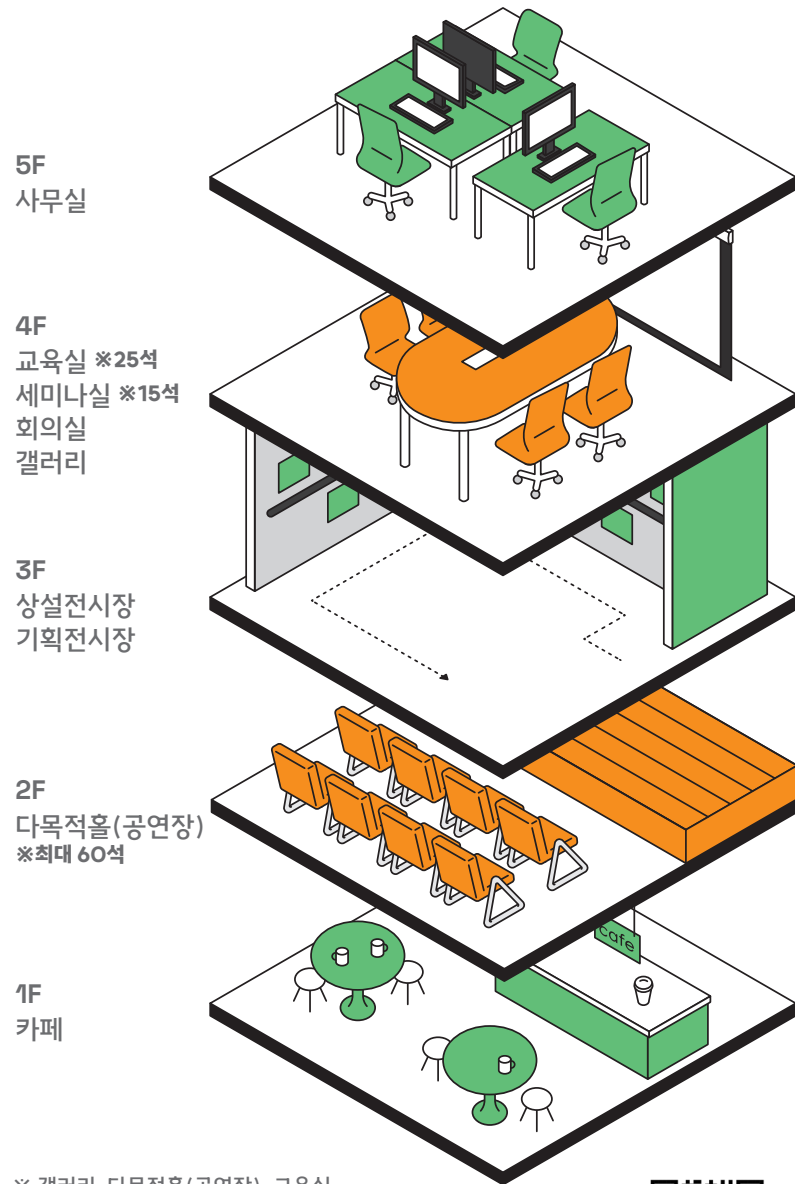


시설안내



※ 갤러리, 다목적홀(공연장), 교육실, 세미나실, 소형 회의실 무료 대관 가능
문의 02-318-0903

※ 공공개방자원 <공유누리>사이트에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전태일이 남긴 노동인권의 덩이

힘에 겨워 힘에 겨워 굴리다, 다 못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잠시 다니러 간다네.
...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내 생애 다 못 굴린 덩이를, 덩이를,
목적지까지 굴리려 하네.

- 전태일의 수기 中 일부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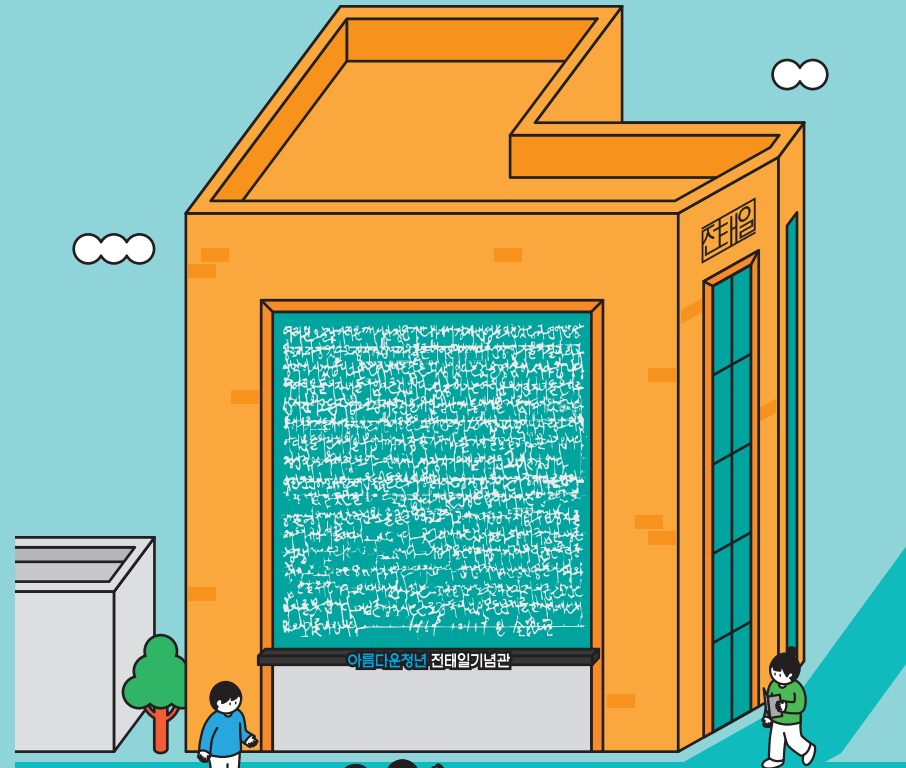
찾아오시는 길

관람시간 3-10월 10:00~18:00
11-2월 10:00~17:30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당일
관람료 무료
주소 (0319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문의 02-318-0903~4
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15번 출구
2,3호선 을지로 3가 1,2,4번 출구
(종로구 청계천로 105, 수표교 인근, 전태일 다리 도보 30분 거리)

국내 최초 노동 테마 전시관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전태일기념관 프로그램 안내

<청.바.지> 청소년노동인권 바로알고 지키자!



대상 청소년 15인 이상 단체
내용 예비 사회인으로서 청소년들이 노동권리를 지키고 부당한 처우 및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을 교육과 관련 체험(노동인권 유퀴즈 및 노동인권 스마트키링 만들기)을 통해 알아가는 교육프로그램
문의 02-2273-0906

달려라! 노동인권체험관



대상 초(고학년), 중, 고등학생
내용 5톤 트럭을 활용한 영상전시, 전태일 매직쇼, 단막극과 강연 등 다양한 콘텐츠가 어우러진 이동식 노동인권 체험 교육장으로 사회적 노동약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입체적으로 전달하는 노동인권 인식개선 프로그램
문의 02-318-0903

노동인권체험교육



대상 학생 및 일반시민 등 6인 이상 단체
내용 전태일의 삶을 통해 노동환경의 가치와 노동인권을 이해하고, 더 나은 노동문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
문의 02-318-0903

일요매직시네마



대상 일반시민
내용 매주 일요일(11시~15시 40분)마다 2층 다목적홀(공연장)에서 진행되는 전태일 관련 영화 및 미술공연으로 구성된 문화프로그램
문의 02-318-0903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은

2019년 서울시가 건립한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은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주요한 기점을 마련한 전태일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세워진 노동복합시설입니다. 전태일과 청계 피복노동조합, 근현대 노동사와 관련된 자료를 보존 및 수집 하고, 연구함으로써 전시, 교육으로 확장 시켜 시민들에게 전태일 정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념관 정면부(파사드)는 1969년 전태일이 근로감독관에게 보낸 진정서를 모티브로 제작하여 새겨 넣은 것입니다. 이 조형물은 당시 참혹했던 노동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한 청년 노동자의 외침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청계천 수표교 인근에 연 면적 1920㎡ 지상 6층 규모로 이루어진 전태일기념관은 전시관과 문화시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층에는 문화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연장이 마련되어 있고, 3-4층은 전태일의 생애와 노동운동에 관한 상설전과 다양한 노동문제와 관련된 주제의 기획전이 열리는 전시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설전시 안내

1부 전태일의 어린 시절

전태일은 가난한 집안에서 고된 어린시절을 보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대구와 부산, 서울을 오가며 떠돌이 생활을 했다. 어린 나이에도 신문팔이, 구두닦이 등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을 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태일은 밝고 재능이 많은 소년이었고,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지속하지 못했지만, 공부에 대한 열망은 꺾이지 않았다.



가족 사진(가운데 전태일), 1951년, 전태일재단

2부 전태일의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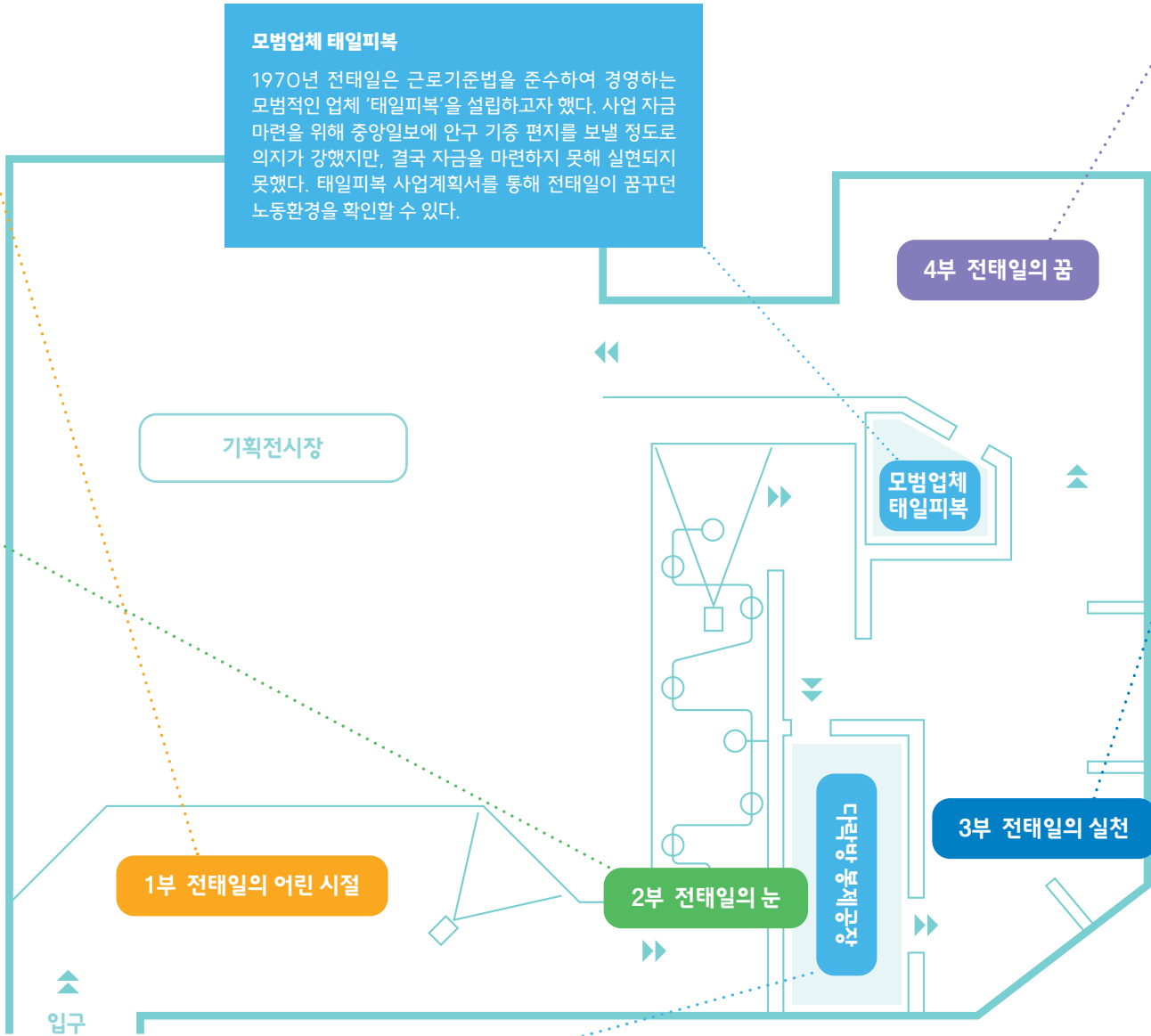
전태일은 18살에 본격적으로 평화시장의 봉제 노동자가 되었다. 그러나 안정된 직장 에서 기술을 배워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바람과는 달리 평화시장의 노동 현실은 비참하고 끔찍했다. 어린 시다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며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전태일은 자신의 버스비를 털어 아픈 여공에게 약을 사주거나 음식을 사다 먹이는 등 나눔을 실천하고 2시간 이상 걸어 집에 가기를 반복했다.



평화시장에 갓 취직했을 때, 동료 시다·미성보조들과 함께, 1964년, 전태일평전

다락방의 봉제공장

평화시장의 봉제공장은 다락방을 만들어 2층으로 개조하여 높이가 1.5m 남짓이었다. 30여 명의 작업자가 8평 정도의 좁은 공간에서 근무했다. 10대 어린 소녀들은 15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과 야간작업에 시달리며 폐결핵, 안질, 위장병, 신경통 등 다양한 질병에 시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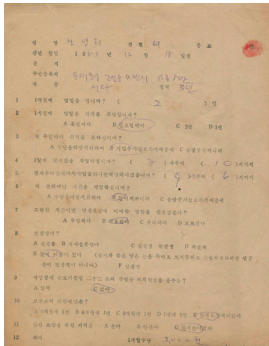


4부 전태일의 꿈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은 노동자의 어머니였다. 전태일은 숨을 거두기 전, 어머니에게 자신이 못다 이룬 일을 이루어 달라 부탁한다. 이소선 어머니는 그의 뜻을 이어 청계피복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끊임없이 노조를 탄압하였으며 이소선 어머니를 구속하였다. 전두환 정권은 청계피복노조에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이소선 어머니는 이에 맞서 싸웠고 1984년 노조를 원상 복구하였으며,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조의 합법화를 이루어 냈다.

3부 전태일의 실천

시다들은 햇볕이 들지 않고, 먼지가 심하게 날리며, 다락방을 뒹대어 허리조차 펼 수 없는 좁은 작업장에서 장시간 노동, 밤샘 야간 노동에 시달렸다.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대부분의 노동자가 질병에 시달렸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태일은 바보회, 이후엔 삼동친목회를 결성, 노동 실태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근로조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자,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결심한다.



평화시장 노동실태조사 설문지, 1970년대, 전태일재단